

미술, 당대 거장들 불교와 소통하다

안희경 불교저널리스트, '불교평론'에 기고

현대사회 군상들의 변이를 표현한 수많은 타일을 뒷배경으로 금동미륵부처가 트렁크에 앉아 사유에 빠져있다. 반구형의 공간에서 각 타일들에 담긴 변이는 일견 고뇌하는 듯한 일견 평온한 듯한 미륵부처에 집중되며 사라진다.故 백남준 작가를 잇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대표작 <금동미륵부처사유상>이다.故 백남준 작가와 마찬가지로 <초콜릿을 먹는 부처>, <오페라를 부르는 부처> 등 그의 작품세계는 유난히 부처를 소재로 한 대표작들이 많다.

설치미술 대가, 현대미술계의 거장인 그의 작품 소재가 부처인 이유는 왜일까.

"나의 작품에는 예수도 등장하고, 마리아도 등장한다. 다만 서구인들이 부처에 주목했을 뿐이다."

2010년 강익중 작가와 불교 저널리스트 안희경 씨의 만남은 안 씨에게 화두로 다가왔다.

"왜 서구인들이 부처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에 주목했을까. 현대미술의 지향점과 불교의 지향점이 맞닿아 있지 않아서일까. 시대의 절병인 현대미술가들이 주목하는 불교는 무엇이며 불교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점을 제시해야 하는가"

서구인들은 불교 외형보다 '사상'에 더 관심 거장들의 작품은 '구도'의 과정과도 일치해

안희경 작가는 계간 <불교평론> 제 49호에 실린 '미술, 당대 거장들 불교와 소통하다' 글을 통해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현대 한국불교의 나아갈 점을 짚었다.

서구사회가 불교에 주목하는 것은 외형이 아닌 사상

안 씨는 이 글에서 현대미술가들의 작품 속에 숨어있는 불교세계와 그에 기반한 작품들의 사회 기여를 주목했다.

안 씨는 평론에서 불자이면서 21세기 최고 행위예술가로 평가받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소개했다. 1997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2010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뉴욕 근대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에서 회고전 '작가가 여 기있다' (The Artist Is Present)를 열었다. 이 회고전에는 뉴욕 인구에 맞먹는 85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모마 개관 이래 최고의 관객 동원이다.

그녀의 회고전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의자에 앉아 단 1 분도 움직이지 않고 관객 중 한명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었다. 총 736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퍼포먼스에 유명 대중 예술인들이 밤부터 기다려 마리나와 마주 앉았다.

안 씨는 이런 퍼포먼스는 고통의 인내가 아닌 장엄한 소통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질제된 두 행동 속에 거대한 두 우주가 마주하는 폭발이 터져나왔으며 겹겹의 관객도 감동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통을 이뤘다. 미술관이 선방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안 씨는 마리나의 예를 든 이유가 한국불교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더욱 많은 이들이 물질 문명의 벽을 느끼며 해답을 찾아 불교적인 심연으로 들어가고 있다. 불교는 이제 중산층까지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이어 "고급문화로 젠센터나 불교서적을 탐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의 포교형식이 문제"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안 씨는 "서구인들은 책을 통해 불교를 접하는 북돋는 출발을 해 상품으로 전달되는 불교보다 법을 깨우쳐줄 스승을 찾는다"며 동서양을 넘어 불교의 접근 방식이 부처님 법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백화점이 아닌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

안 씨의 분석은 동양 작가에 이어 서양 작가의 작품세계에 까지 이른다.

안희경 씨는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비디오아티스트인 리처드 세라의 <납 잡기>라는 작품을 분석한다. 안 씨는 납을 놓치는 모습과 그것을 잡는 모습을 통해 불교의 업(業)과 식(識)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굳이 가부좌 틀고 참선자리에 앉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의식의 분리와 삼매 체험이 가능하다고 리처드 세라의 비디오 속에서 그 일면을 엿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안 씨는 개념미술의 선구자인 엘리노어 앤턴의 작품 'CARVING (조각하기)'을 소개했다. 안씨는 조각 대상이 바로 조각가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작가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선(禪)적인 접근을 했다고 평했다. 또 '부재(不在)'를 뜻하는 <페르소네스(Personnes)>라는 작품을 선보인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불탕스키에 대해서는, 단지 거대한 공간에 흰 옷을 산티미처럼 쌓아놓고 누군가 이 세상에 왔다 벗어 놓은 흔적을 표현한 그의 작품을 통해 이 작품을 '부재'가 아닌 '무상(無常)'으로 재해석했다.

안희경 씨는 이런 분석을 통해 서구인들이 주목하는 불교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씨는 "현재 최고의 작가들과 소통하는 불교는 바로 부처님 법으로 그들은 사찰음식, 사찰 사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는 흔히 들리는 현재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현대화가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지 알려 준다"고 비판했다.

안 씨는 끝으로 "그 답은 결국 '수행' 뿐으로 정진의 모습만이 불교백화점에 있는 서구인들을 깨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불교계가 서양 지식인들에게 참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덕현 · 주성원 기자



강익중 작 <금동미륵부처사유상>

관능미로 표현된 불교美

김나래 작가, 9~15일 갤러리 아우라서 '나래전'

엄숙한 모습의 불보살상 대신 관능미 넘치지만 친근하게 불보살의 특징을 살린 전시회가 열린다.

김나래 작가는 12월 9~15일 서울 마포 갤러리 아우라에서 관능미 넘치는 보현보살도 등을 전시하는 첫 개인전 '나래전'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관능미 넘치는 불보살도에 대해 "인간을 초월한 존귀한 석존의 모습도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나래 작가는 이번 작품전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25점을 선보인다. 대부분이 가슴을 드러낸 반라의 여성으로 표현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다.

북촌 김익홍 선생과 여성 금박장 1호 백태남 사이에서 태어난 김나래 작가는 현재 단정수리기술사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접한 김 작가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존경의 대상이나 존엄함 스승이 아닌 친구였고 보호자였다"며 "어떻다면 현대인들에게 친근한 모



습의 보살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엄숙함을 빼고 관능미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02)334-6750

노덕현 기자

불교 바라오페라단, 송년음악회 개최

한국 최초 불교 오페라단으로 창단한 바라오페라단(단장 귀영, 양주 대승사 주지)이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떠나는 이 마음, 그리고 가을교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안국선원 합창단과 불교연합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남녀혼성 중창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김성범 지휘자의 지휘와 장혜서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 아래 법운 스님이 작사하고 정부기 작곡가가 작곡한 촛불, 가을교차, 달빛사랑, 환희의 찬가, 보내는 이 마음, 부처님의 감로법 등이 선보였다. 2부 행사에서는 연경숙 지휘자의 지휘아래 안국선원 합창단이 아름답

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부처를 불러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불자들의 2중창, 독창, 3중창, 연합 합창 등 다양한 합창 공연이 진행됐다.

바라오페라단 단장 귀영 스님은 "저물어 가는 한해 부처님을 향한 찬불의 향연과 음성공양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는 충만한 한 해로 맞이하자"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전문 성악인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바라오페라단은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2006년 오페레타 '아미타불'과 뮤지컬 '아도화상', 2008년 창작 뮤지컬 '오세암'을 선보인 바 있다.

노덕현 기자



2010년 9월 파리 시민의 반대 시위를 불구하고 베르사이유 궁이 개최한 다카시 무라카미의 특별전에서 인터뷰

안희경 작가는

前 BBS불교방송 PD로 동국대에서 불교미술 석사를 받았다. 1998년, 2000년 한국방송대상 수상했으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세계 석학들과 현대미술 거장들을 인터뷰하고 명상적 시각에서 해석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틱낫한 스님의 환경을 지키는 책 <우리가 머무는 세상> 등을 번역했다.

조계종 전장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지관(止觀)은 염불·간화선·위빠사나 등 모든 수행의 **핵심 법문!**

지관수행 법공양시 특별 할인!

지관수행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 강의 천태지의 지 | 송진우 역해 신국판 | 흑백 | 456쪽 | 2011년 11월 25일 발행 18,500원

모든 법·복방 수행법의 이론과 실제 결집인 수행 지침서 'Zisamatha'를 통해 선정을, '관vipassana'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낙엽 밟는 소리에 한 생각 그쳤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 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 상수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 치되도록 경전인용과 일 상가운데 중독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봉명재(奉命齋) 기도 안내

깨달음 빛의 축복
운명의 대전환

부처님과 화엄성종 104위, 모든 제불보살님을 모시고 빛의 축복을 받아 어둠을 지우고 소원을 밝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바르고, 빠르게 성취시키는, 운명을 새롭게 하는 빛의 의식입니다.

봉명재는 살아계신분들을 위한, 각자가 타고난 운명에서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보완해주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기도 접수상담 -
033.434.7232 (종무소) / 010.6255.6914

빛의 성지 여래사